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민주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반 득표자 없으면 1~2위 득표자 결선 실시  
“민주주의 기본원리 반영, 당선인 정통성 제고 기대”



윤 의원은 이어, “0.73%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은 우리 정치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면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선 직전에 정치교체, 기독교교체를 통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지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 정치개혁안에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외 추천제,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4년중임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지금의 단선다수제에 비해 ‘다수결의 원리’, ‘과반수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들이 훨씬 더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0.73%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은 우리 정치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면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선 직전에 정치교체, 기독교교체를 통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지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 정치개혁안에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외 추천제,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4년중임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지금의 단선다수제에 비해 ‘다수결의 원리’, ‘과반수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들이 훨씬 더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선다수제 방식이다.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는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당선되는 구조다. 지난 1987년 직선제 이후,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로서, 과반을 넘는 득표는 한 번뿐이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제 자체가 국회의 대통령·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고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그만큼 국정운영상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이유로 당선인의 대표성·정통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단선다수제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육성 체계화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등… 김철수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민 10명 중 4명(41.1%)이 농촌관광을 경험했으며, 이들이 지출한 비용도 한 해 동안 약 7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국내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 관광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인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라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교직원수련원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명확하게

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심사 후  
부안 소재 수련원 현장 찾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3건의 의안심사 후 4월 개원을 앞둔 부안군 소재 전북교육청 교직원수련원 현장을 방문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7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3건의 의안심사 후 4월 개원을 앞둔 부안군 소재 전북교육청 교직원수련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이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전북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시설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주 운곡지구 공동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유입될 유아의 배치를 위한 ‘가칭 원주운곡유치원’ 신설 등 14개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증개축 계획이 포함된 원안대로 심·의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오는 4월 개원 예정인 부안군 변산면 소재 ‘전라북도

교육청 교직원수련원’을 찾았다. 교직원수련원은 앞으로 교직원들에게 연수 및 회의공간과 복지 공간을 제공할 곳으로, 전북교육감 소속 모든 교직원 및 가족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교육위원들은 개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교직원수련원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황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교직원수련원은 교육 가족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만족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교육위원들은 교직원수련원 인근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캠버리 부지를 방문했다. 현장에 도착한 교육위원들은 “현재 코로나9로 축제가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기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축제가 이곳에서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문건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7일 제 388회 임시회 기간 중 익산에 소재한 금마~삼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 및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7일 제 388회 임시회 기간 중 익산에 소재한 금마~삼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 및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먼저, 금마~삼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으며, 익산·원주 간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옛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새 단장해 올해 1월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찾아 현황을 청취했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공간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시찰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어린이 박물관 개

관으로 국립익산박물관이 완공된 체제를 갖췄다”며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함께 익산이 전북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부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 정읍시장 예비후보 등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정읍시장 선거에 나서는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읍시 선관위에 정읍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금 정읍은 위기의 벼랑 끝에서 있는 형국으로, 이제는 정읍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때”라며 “정읍의 변화를 바라는 현명한 정읍시민은 유능한 젊은 일꾼 깨우친 새 인

물 최도식을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정치인으로서 흑색선전, 음해, 모함 등의 네거티브 선거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며 “경쟁하는 선배님들도 정책 경쟁의 모범적 선거문화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 “농업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단가 현실화해야”

송지용 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이 전북도가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17일 제안했다. 송 의장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철강가격은 전년 대비 50% 상승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조선업계의 수주 호재로 철강 수요가 폭증하면서 철강 가격은 무려 102% 올랐다. 이에, 비닐하우스와 고추 비닐하우스의 주요 기자재인 철근 파이프 단가의 경우, 지난해 기준 1만원에서 1만7,5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비닐하우스 사업지침의 단가 기준이 1㎡당 단동은 2만2,000원, 연동은 9만1,000원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1㎡당 단동은 3만원, 연동은 13만원으로 38%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농업용 시설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설하우스 신축 비용이 상승해 농가들의

자부담 비용이 크게 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식품부와 전북도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단가는 동결되면서 지원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국비 사업인 고추 비닐하우스의 지원 단가를 도비 사업에 일괄 적용하는가 하면, 전북도 역시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돼 지원 단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지용 의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용 시설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시설원예 분야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민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과 지역특화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전북도가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라도 지원 단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 기업 유치부터 시민 삶의 질 향상까지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익산 정책공약 발표 잇따라  
분야별 공약 계속 내놓기로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연이은 정책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도시정책전문가로 통하는 최정호 전 차관은 자신의 장점을 살린 정책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최 전 차관은 익산을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보 3월 15일자 3면> 최 전 차관은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 구축을 통해 익산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제6, 6산업단지를 조성을 통한 차세대 2차전지 클러스터 구축과 대기업 유치, ▲익산역·역세권 에 ICT벤처단지 구축으로 첨단기업과 청년창업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기를 통한 글로벌 식품기업, 식품 대기업 유치, ▲원광대병원과

익산 소재 특화 병원, 의료관련 연구소 연계 디지털헬스케어특구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최 전 차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심공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심공정책 1단은 익산 공공 안심놀이터 키즈카페·실내놀이터 조성, ▲2단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3단 ‘메이드인 익산 청년인재’ 시스템 구축, ▲4단은 ‘365일 생나는 활력 축제도시 익산’이다. 지속적으로 노인, 청소년, 소상공인, 환경, 문화예술 등 분야별 폭넓게 공약이 계속 발표될 예정이다. 최정호 전 차관은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익산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익산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